

2020년 11월 1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역정책과 과 장 장재홍(044-201-2071), 사무관 이재명(2075) / 제공일: 11월 18일 (총 2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금지

《 주 요 내 용 》

- ◆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웨덴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, H5N8형)가 발생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와 가금육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(11.18.)함
- ◆ 최근 유럽 내 HPAI 지속 발생으로 수입금지 조치가 확산되고 있어, 현재 가금류 등의 수입이 가능한 EU 3개국(스페인, 벨기에, 핀란드)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고 밝힘

□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김현수, 이하 '농식품부')는 스웨덴 정부가 가금농장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(HPAI) 발생을 발표함에 따라 스웨덴산 가금류(닭, 오리, 조류 등)와 가금육의 수입을 11월 18일(수)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.

○ 스웨덴 정부는 스코네(Skåne)주 소재 육용 칠면조 농장(1개소)*에서 HPAI(H5N8형)를 확인하고 살처분 등 방역조치를 발표함.

* 칠면조 약 200,000 마리(12주령)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모두 살처분 예정

□ 이번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▲살아있는 가금(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)
▲가금 초생추(병아리) ▲가금종란, 식용란 ▲닭고기, 오리고기 등
가금육·가금생산물 등이다.

○ 스웨덴산 가금류는 올해 수입실적이 없으며, 가금육은 냉동
닭발(1건 24톤)이 수입되어 검역 중임.

□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 전역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고 있어
이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가 총 8개국*으로 늘어남에 따라, 수입이
가능한 나머지 EU 국가**에 대한 가축질병 발생정보 모니터링을
강화한다고 밝혔다.

* EU 수입금지국(수입금지일): 폴란드(1.3.), 헝가리(1.14.), 독일(2.11.), 네덜란드(10.30.),
영국(11.4.), 덴마크(11.17.), 프랑스(11.17.), 스웨덴(11.18.)

** EU 수입 허용국: 벨기에, 스페인, 핀란드